

Style 1 조선일보

MARCH 2021
vol.218



TROYE SIVAN, RAMI MALEK,
MAISIE WILLIAMS, WILLOW SMITH, JACKSON WANG,
THE PASHA COMMUNITY ON CARTIER.CO.KR



PASHA DE *Cartier*





12



15

조선일보
Style
MARCH 2021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토즈의 2021 S/S 컬렉션은 인위적이지 않은 캐주얼한 감성을 담아 이 상적인 여행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했다. 표지를 장식한 제품은 실루엣이 우아한 필드 재킷, 레더 스커트, 그리고 클래식한 T 타일랜드(T Timeless) 백으로 토즈의 뛰어난 이탈리아 레더와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문의 02-3438-6008



24



08

- 12 **연대, 우정, 회복에의 의지를 다지며** 지구촌에 강타를 날린 팬데믹의 파장 속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수차례 연이었던 현대미술 축제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드디어 막을 올린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오는 4월 1일부터 39일간의 여정을 펼칠 예정이다. 예기치 못한 글로벌 위기의 여파로 이번 비엔날레는 규모와 기간이 줄어들었지만 콘텐츠의 질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위기 속 예술적 연대는 과연 우리에게 치유의 미학을 선사해줄까?
- 15 **KOREAN MASTERS** TV CHOSUN 개국 10주년을 맞아 해외 아트선과 공동 기획한 특별 기념전 (한국 현대미술 거장展: 더 오리지널). 미술가 5인의 다채로운 작품 1백여 점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태동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3월 21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이 어진다.
- 16 **TIME TO SUCCEED** 성공적 커리어를 이어나갈 당신의 손목에 어울리는 클래식 드레스 워치.
- 17 **GOT YOUR BACK** 등 뒤에서 든든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매일을 함께 할 빅 패션 하우스의 백팩 6.
- 18 **2021 S/S TREND REPORT**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2021 S/S 시즌 대부분의 패션쇼는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되거나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됐다. 화랑과 시장, 연대 등의 긍정적 메시지를 담은 2021 S/S 시즌 남녀 컬렉션의 주요 트렌드 10가지를 소개한다.
- 20 **MAGIC NUMBER 5** 올해 사계는 향수 N5 탄생 1백 주년과 곧 다가올 비주드 디아팡 탄생 9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하이 주얼리에서 특별한 컬렉션과 전대미문의 네크리스를 선보이며 기념예를 기념하기로 했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로맨틱한 제안, 바로 올해의 컬렉션 N5다.
- 24 **ONE AFTERNOON** 봄 햇살, 봄바람, 여유롭지만 사프함이 느껴지는 남자의 뉴욕.
- 32 **4천만원부터 4억원대까지, 차박 자동차** 자동차는 또 하나의 개인 공간이자 집 다음으로 크고 비싼 공간이다. 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차박이 유행이다. 어떤 차든 차박은 가능하지만 낙담하면 더 편하다. 공간 낙담한 가격대별 차박 자동차를 꼽았다.
- 34 **SILKY TOUCH** 봄바람이 실랑실랑, 비아호로 스카프의 계절. 빈틈한 스카프 스카프부터 프티 사이즈 트윙클까지 실크 스카프 한 장으로 즐기는 낭만적인 봄날의 스타일링.
- 35 **BALANCE OF BEAUTY** 이스타일에서 탄생한 홈케어 뷰티 데이비스 브랜드 실론이 유·무선 듀얼 사용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한 3세대 고주파 미사지가를 선보인다. 편리함은 물론 안전성과 기능, 그리고 그림감까지 뛰어난 실용적이다.
- 36 **ALL THAT AUDIO** 예전만큼 공연장과 연주회에 마음껏 갈 수 없어 아쉽지만, 훌륭한 사운드만큼은 그대로 즐길 수 있다. 최고의 성능과 음향을 자랑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 38 **EDITOR'S PICK** 자꾸만 손이 가는 뉴 시즌 뉴뷰티 아이템.

Style 조선일보

Issue.218 March 2021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희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상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the Faubourg Odyssey



FRESH GREEN

갓 손질한 푸르른 풀로 경계에서 한차례 달리는 말과 선수의 강인함에서 영감을 얻은 풀로 EDT. 상큼한 라임과 바질, 베터베르가 어우러진 톱 노트로 시작해 레더와 타바코, 시다가 조화를 이루는 농밀한 미들 노트가 바탕을 이룬다. 덕분에 한층 진하고 풍부한 시트러스 향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발삼과 파출리, 오크모스가 산뜻한 진향을 남기며 기분 좋은 여운이 감돈다. 싱그러움 숲을 연상시키는 그린 보틀에 담았다. 128ml 11만2천원, 문의 080-363-5454



너하고 나는

그렇고 그런 사이, 커플이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유니섹스 주얼리. (유류티) **볼가리 비제르원탁 나크리스** 화려함과 반짝임이 무드가 공존하는 대담한 디자인이 특징. 로즈 골드에 블랙 세라믹을 매치했다. 3백90만원대, 문의 02-2056-0170 **반클리프 아펠 영드래곤 시그니처 밴드** 매장을 탄생시킨 이젤벨 아펠과 알프레드 반 클리프 커플의 애정을 담은 링. 로즈 골드 버전 1백만원대, 문의 1668-1906 **프리드 포스텐 브레이슬릿** 18K 핑크 골드에 블랙과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8백4만원, 문의 02-3449-5993 포토그래퍼 **빅지영** 에디터 **장유은**



MINI CUBE

콤팩트하고 유연한 디자인, 다채로운 컬러와 알찬 수납공간으로 잇백 리스트 반열에 새롭게 떠오른 미니 큐브. (유류티) 멀티컬러 모노그램 캔버스로 제작한 게임 온 배너티 PM 사티 백 3백43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주말 장식 로고를 전면에 새겨 상징성을 다한 랭 스킨 배너티 백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신명현 황광 그린 컬러를 입힌 스웨이드 배너티 백 미약 2백만원대 **로저 비버베**, 문의 02-6905-337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유이**



봄의 인사

곱잡이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하이 주얼리 반클리프 아펠. 매년 다채로운 컬러의 생동감 넘치는 작품으로 봄을 맞이하는 이들이 올리는 '락키 스프링' 컬렉션을 선보인다. 양쪽은 무당벌레, 매화꽃, 은방울꽃, 이파리 모티브를 보고 있으면 매종 특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이 느껴지는 듯하다. 로즈 골드 소재에 카블리언, 화이트 머더오브밀, 오피스 등을 세팅한 롱 나크리스, 브레이슬릿, 클립, 이어링 등 다채로운 모델로 만날 수 있다. 문의 1668-1906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INSIGHT

'아름다운 시대'의 진면목을 들여다보다

하수상한 나날 속에서 찬란함이 돋보이는 과거에 대한 향수나 관심이 유독 큰 듯한 요즘이다. 19세기 말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프랑스의 문화 예술 번영기를 뜻하는 벨 에포크(Belle Époque)도 그중 하나다. '아름다운(좋은) 시대'라는 의미를 지닌 벨 에포크의 놀라운 정도로 눈부시고 역동적인 풍경을 다각도로 조망한 책이 나왔다. (스타일 조선타블)에서 3부작 시리즈로 다루기도 했던 벨 에포크의 여행을 담아낸 1세대 패션 칼럼니스트 심우연의 신작으로 시공사에서 펴낸 <벨 에포크, 인간이 아름다웠던 시대>(408쪽, 2만 2천원), 최초의 '월드 스타라' 할 만한 대배우이자 예술가들의 진정한 뮤즈였던 시라 베르나르, 그녀와의 협업으로 벨 에포크를 상징하는 아티스트가 된 알폰소 무하, 스타 포토그래퍼 펠릭스 나다르 등 흥미로운 인물들과 더불어 극사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프랑스 예술 가곡 멜로디 프랑세즈의 미학, 문화와 지성의 산실이던 살롱 문화, 산업의 비약적 발전 속에 꽃피운 만국박람회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녹아 있다.



TIMELESS STYLE

토티의 컬렉션이 늘 근사한 이유는 실용성과 우아함이라는 열릿 상반되는 듯한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야!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인 모카신 펌프스도 마찬가지.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 에이프린의 윤곽을 따라 수작업으로 레이지드 더블 스트랩을 적용한 슈즈는 빈티지한 골드 체인 클램프 디테일을 더해 클래식한 맛이 물씬 느껴진다. 고무 인서트 디테일의 6cm 힐은 활동성을 보장하는 적당한 높이로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다. 96만원대, 문의 02-3438-6008



팬더의 변신

1백여 년이 넘는 매종의 역사를 수호해온 아이코닉한 팬더 디자이네가 한층 간결하고 슬림해졌다. 팬더가 본래 지니고 있는 야생적인 카리스마를 유지하면서도 사랑스럽고 장난스러운 핑색조 매력을 더해 강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심플해진 디자인은 데일리의 주얼리로 착용하기에도 인성맞춤. 옐로 골드 베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에메랄드로 눈을, 오피스 로 코를 표현한 팬더 디자이네에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LOVE YOUR STEP

하우스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마블로 블라니 메이세일 슬라이드 플. 버클 장식을 얹은 슬릭한 실루엣이 특징인 이 아이템은 높이 7cm 힐을 장착했음에도 산악을 때 놀라운 정도로 안정적이다. 2021 S/S 시즌을 맞아 생생한 라임 컬러와 푸크사아, 스카이 블루 컬러를 새롭게 추가해 한껏 밝은 기운을 전한다. 1백만원대, 문의 02-3443-2113



THE TRIANGLE

보티가 베베를 이끄는 젊은 수장 다나엘 리의 데뷔 컬렉션인 2019 F/W 시즌부터 눈길을 끈 트라이앵글 모티브. 코트의 포켓과 여민, 스카티 벨트, 핸드백의 스트랩과 핸들 등 컬렉션 전반에 걸쳐 접목한 이 재밌는 시그니처 디테일은 이제 '뉴 보티가 베베' 하우스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 요소다. '살롱 01' 컬렉션의 '트라이앵글 백' 역시 역삼각형 손잡이가 특징인 모델로 레디투웨어와 동일한 버클 부클레 소재, 강렬한 컬러 대비가 돋보인다. 입체적인 니팅 기법으로 구현한 텍스처가 매력적으로 청목색을 믹스한 레드, 레드와 블랙을 믹스한 블루, 옐로우와 화이트를 믹스한 핑크, 총 세 가지 컬러로 전개한다. 4백82만원, 문의 02-3438-7682



CLEAN & NEW

자연주의, 클린 뷰티를 표방하는 신생 브랜드의 스킨케어 라인업 3. (왼쪽부터) 피부 진정 케어 라인으로 선보이는 신뜻한 클렌저인 켈 크림. 해당 성분수, 자자나무 수액, 귀리 케일 오일, 시황부의 배터민 성분 등을 담았다. 아침저녁으로 토너와 에센스 다음 단계에 사용한다. 50ml, 4만9천원대 **로아비**, 문의 02-3479-1551. 촉촉하게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주는 슈퍼 차지 파스트 오일. 바다 수산화, 호호바씨 오일, 포도씨 오일 등의 식물성 추출물을 담았다. 가볍게 흡수되는 제형으로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한다. 30ml, 3만9천원 **라이브오이즈**, 문의 02-3677-9703. 고유의 베타-히알루론산"을 담아 3중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에 촉촉한 보습력을 형성하는 에센셜 스킨. 프로바이오티스 B의 전구체인 락토네를 함유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200ml, 1만9천원 **아나프 프로텍트**, 문의 060-0243-5454.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유이**





Selection

가볍고 따뜻한 소재로 완성한 부드러운 실루엣,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스포링 클래식 캐주얼 룩.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핀스트라이프 패턴과 블루 컬러의 조합이 새롭던 실크 라넨 스카프 1백27만원.

소프트 스웨이드의 질감에서 고급스러움이 풍어는 페니 로퍼 1백7만원.

소재의 대비로 포인트를 더한 벨트 1백7만원.

포근한 느낌을 전해는 헨디 넥 라넨 코튼 니트 1백7만원.

코튼 캐시미어 스웨이드 캡 7만원.

내구성이 뛰어난 버클로 레더 트래블 백팩 3백37만원.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레더로 만들어진 캐주얼한 스타일의 미니백 1백69만원.

조경향을 지향하는 모넬리 밴드 니트 스니커즈 1백69만원.

플러터 웨이브가 특징인 실크 롱스커트 2백27만원.

복에 힘을 더해주는 모넬리 리피아 햇 1백97만원.

부드러운 카프 스킨 소재로 완성한 소퍼 백 4백49만원.

가볍고 두꺼운 캐시미어 실크 스카프 1백27만원.

www.brunellocucinelli.com



BRUNELLO CUCINELLI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전문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구신세계점, 센텀시티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안국점, 대구점, 부산점, 갤러리아백화점 EAST /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부산본점 / AK플라자 본점



브라운 송이치기족 핼트 백, 20X15cm, 1백만원대 맨다.

아세이트 소재로 제작한 스포츠 선글라스 180도 회전 레이플 by 루스타카.

최대 20% 할인 혜택과 함께, 비시즌 시즌에는 40%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스웨이드를 덧댄 고무 페달 디테일 스니커즈 70만원대 토즈.

베네치아 레더와 캔버스 소재를 최상의 조합으로 선보이는 미니 백, 26X14cm, 가격 미정 블루티.

폴리에스테르 PK 셔츠 가격 미정 프라다.

Selection

골프 라운딩도 스타일리하게!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다양한 사이즈의 표제로, 용량적인 수납이 가능한 블랙 미니 트롤러 캐디 백, 23.5X126cm, 54000원대 이상트 골프.



유연한 폴리 소재로 제작한 핑크 스커트 19만원대 블루 골프.



표준 핑크 레더 180도 회전 레이플 by 루스타카.



크림 베이지 컬러 나일론 버킷 햇 58만원 프라다.



이러니만큼 스윙 포인트를 보충하는 핑크 공 12개 세트 1만원대 맨다.



방수 김파로 굽은 날사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스파이크 골프화 24만원 아디스 골프.



부드러운 양가죽 소재 장갑 11만5천원 마크앤로나.

- 랜드 02-514-0652
- 광골프 02-511-4511
- 토즈 02-3438-6008
- 벨루티 02-547-1895
- 에르메스 02-542-6622
- 루스타카 02-501-4436
- 프라다 02-3218-5320
- 대산트 골프 080-565-5600
- 블루 골프 061-720-5113
- 마크앤로나 02-719-3886
- 아디스 골프 1588-8241

HUGO BOSS KOREA LTD. PHONE +82 2 2210 5100 BOSS.COM



BOSS

CHRIS HEMSWORTH

BOSS HUGO BOSS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연대, 우정, 회복에의 의지를 다지며

지구촌에 강타를 날린 팬데믹의 파장 속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수차례 연기됐던 현대미술 축제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드디어 막을 올린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오는 4월 1일부터 39일간의 여정을 펼칠 예정이다. 국가별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참여하는 두 나라인 대만과 스위스의 전시장은 이미 지난 2월 말부터 전시를 꾸리고, 장외 전시도 선보이고 있기에 사실상 축제는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 대만 파빌리온 프로젝트인 <한 쌍의 메아리>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스위스 파빌리온 프로젝트인 <얼론 투게더>는 은암미술관에서 각각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색다른 면모로 각기 호평을 얻고 있다. 예기치 못한 글로벌 악재의 여파로 이번 비엔날레는 규모와 기간이 줄어들었지만 콘텐츠의 질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위기 속 예술적 연대는 과연 우리에게 차유의 미학을 선사해줄까?



TAIWAN C-LAB



<한 쌍의 메아리>, 역사의 수레바퀴 속 님은 대만-한국 원래대로라면 작년 가을을 수놓았을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2월에 재차 연기되어 애석함을 금치 못한 이들이 있다면, 지금 광주에는 그러한 아쉬움을 달래줄 전시 콘텐츠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듯하다. 월드 엑스포나 베니스비엔날레의 국가관처럼 해외의 우수 기관이 자국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인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그중 하나다. 지난해 광주비엔날레가 열린 2018년 처음 시도한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비엔날레 본전시와 독립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행사로 세계 미술계의 창의적인 교류를 꾀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번에는 당초 6개국의 참여가 추진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대만과 스위스로 좁혀졌다. 지난 2월 26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 대만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한 쌍의 메아리>, 주최 기관인 대만 동시대문화실험장(C-LAB)의 초청으로 8개 그룹에서 14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전시로, 비슷한 운명의 질곡을 거친 대만과 한국의 근현대사를 짚어보면서 보편적 가치를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 실제로 대만은 19세기 말부터 전쟁과 식민지화, 가파른 경제성장, 민주화의 시련 등의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와 닮은 면이 많다. 이렇듯 양국이 메아리와 반사된 거울의 이미지처럼 닮았다면 맥락에서 한 쌍의 메아리라고 표현한 우다쿤(Wu Dar-Kuen) 큐레이터는 몸·서사, 언어·의식, 가요·가사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언어·의식을 예로 들자면, 전시장 입구부터 단연 눈길을 사로잡는 커다란 네온사인 작품이 해당된다. 대만이 로마자와 한글로 각각 나의 소중한 사랑, 작별의 입맞춤과 안녕이라고 쓰여 있는데, 무고한 대만 시민들이 탄압당했던 '백색 테러' 시대의 피해자들이 남긴 유서를 바탕으로 했다고, 장려린, 청위안, 루이탄신이 협업해 완성한 'FM100.8'이란 작품도 마지막 목소리로 애잔한 울림을 준다. 옛 가정집을 연상시키는 공간에 주파수 라디오의 형식을 모방해 쓰촨 사투리로 더빙한 서사를 담은 영상이 흘러나오는데, 닿지 못할 추억의 일기장을 펼쳐보는 듯한 잔잔한 몰입을 안긴다. 가요·가사 범주의 경우, 대만의 전통 가요 '우야회'를 소재로 한 덩자오민 작가의 '이 오랜 세월 동안이' 시선을 끈다.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가너린 여인 같은 이미지를 지녔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던 '우야회' 자체를 1인칭 화자로 설정해 '사람들이 안 불러주면 없어져요', '노래는 노래일 뿐' 등의 메시지를 읊조린다. 다양한 버전의 우야회가 있는데, 한국 음악가 백현진도 참여했다. 전시장에 라이브 연주할 채비를 갖추음에도 바이러스 장벽으로 작가가 내한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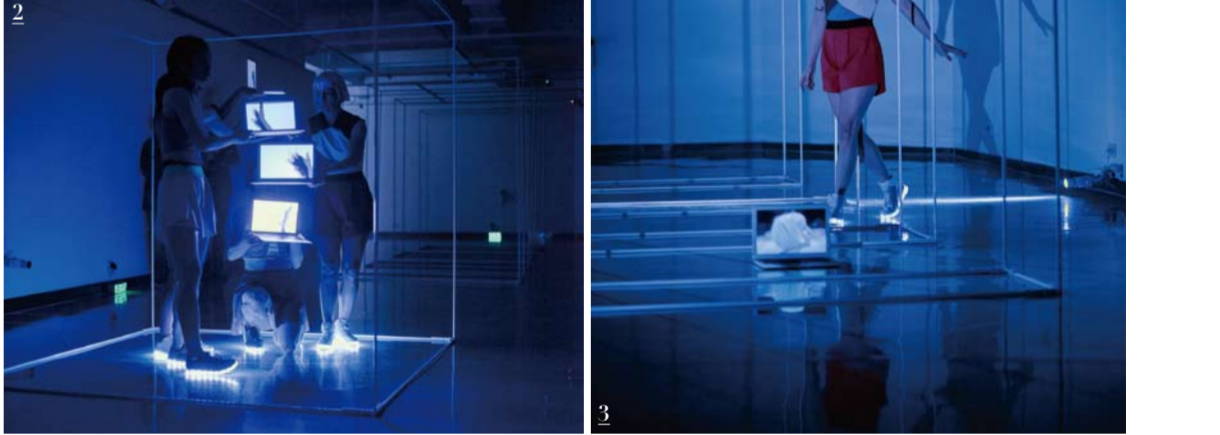
1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중 하나인 대만 동시대문화실험장(C-LAB)이 선보인 <한 쌍의 메아리(Double Echoing)> 전시 모습. 왼쪽에 작가의 네온 사인 작품이 보인다. 2 장려린, 청위안, 루이탄신이 함께 만든 'FM100.8' (2019), 영상 설치. 3 덩자오민, '이 오랜 세월 동안(2020)', 빛을 장치적 변화 속에서도 생존한 대만의 전통 가요 '우야회'를 소재로 한 작품. 4 루이탄, '메아리의 구성(2020)', 5 채널 4K 컬러 영상, 대만의 인연 탄압 사적인 백색 테러의 희생자들이 연주한 곡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담은 영상 작품. 사진 제공 광주비엔날레, Taiwan C-LAB. 1, 3 Photo by SY Ko

안나 안데레그의 <얼론 투게더>, 오감 사로잡는 세계 초연
지난 2월 26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은암미술관 1층 전시장. 오전 11시가 되자 푸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어두운 공간에는 반짝이는 야광 운동화를 신은 여성 댄서들이 등장했다. 랩톱 컴퓨터(맥북)와 휴대폰을 든 4명의 댄서는 백색 알루미늄 구조물만 놓인 공간 여기저기를 느릿느릿 다니면서 때로는 눕기도 하고 때로는 앉기도 하고, 홀로 다니기도 하고 짝을 이루기도 한다. 맥북을 집어 들어 눈, 코, 입을 가리면서 동작을 할 땐 컴퓨터 스크린에 그들의 (대개 무표정한) 얼굴이 나오는데, 어쩐지 서늘하다! 알루미늄 구조물로 구획한 공간 주위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네트워크 공간이 계속 생겨나고, 관객들 역시 그 사이의 공간을 걸어 다니면서 작품의 일부가 된다. 필자 역시 그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눈도 맞춰보지만 쉼~ 하게 돌아오는 상대방의 시선은 뭔가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소셜 미디어로 촘촘히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작용을 꾀하지만, 여전히 외롭고, 아니 외려 더 고독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초상이랄까? 몸은 디지털에 함몰되면서 의식은 따로 노는 '분절도 영보이다. 공연 제목처럼 따로, 또 같이(alone together)'를 여러모로 잘 보여주는 연출이 아닐 수 없다. 한 세션이 60분에 걸쳐 진행되는 이 라이브 퍼포먼스의 후반부로 가면 4명의 댄서는 서로에게 다가서면서 맥북을 치켜든 채 '집단지성' 같은 장면을 만들어낸다. 마치 디지털 시대의 상징적인 브랜드 애플을 찬미하는 듯한 테크노 조각에 닮아 있다. 스위스 안무가인 안나 안데레그(Anna Anderregg)가 다국적 팀을 꾸려 선보인 <얼론 투게더>의 세계 초연은 60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회기 지나가 버렸다. "브러브!" 박수가 터졌다.

디지털 '연결' 사회에서 고립된 현대인의 자화상
멀리서 팬데믹의 장벽을 과감히 뚫고 온 안나 안데레그를 이날 일정이 끝난 뒤 만나봤다. 5시간 연속 공연으로 지칠 법도 한데 2주간의 강도 높은 자가 격리도 끝낸 뒤라 그럴까? 여전히 에너지가 느껴졌다. "사실 한국에서의 자가 격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유형의 (엄격한) 격리는 처음이었거든요. 일도 했고요." 같은 호텔에 묵지만 각자의 방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가상으로만 연결되는 경험은 그야말로 '얼론 투게더'의 핵심!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정해진 공연이라 '미리 계획한 건 전혀 아니네, (요즘 상황과) 잘 맞아떨어졌다'면서 그녀는 웃었다. 격리가 끝난 뒤에는 빠른 일정으로 추위 속 촬영도 강행했다. 인간의 육체와 환경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지 늘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안나 안데레그는 세계적인 인지도도 쌓아가고 있는 안무가로 한국과도 남다른 인연이 있다. 테이프 라이엇(Tape Riot)이라는 안무 작품을 2017년 서울의 공공 공간에서 선보였고, 2020년에는 김사라 건축가, 박수환 감독과 함께 작업한 '남이 설계한 집으로 제3회 서울무용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이들은 다시 뭉쳤다. 이번 라이브 공연을 기록한 박수환 감독의 공간적 비디오 설치 작품과 영화가 광주비엔날레 폐막일인 5월 9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또 공연에서 쓰인 알루미늄 건축 구조물은 휴대용 모듈 시스템이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얼론 투게더>를 진행할 수 있다. 안나 안데레그는 오는 6월 스위스에서 또 한번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1, 4 스위스 파빌리온 프로젝트 <얼론 투게더(Alone Together)>가 제13회 광주비엔날레의 연극 행사로 지난 2월 26일 첫선을 보였다. 스위스 안무가 안나 안데레그(Anna Anderregg)가 여성 무용수 3명과 다국적 팀을 꾸려 세계 초연을 진행했고, 3월 3일까지 매일 5시간씩 공연을 펼쳤다. 최승윤(한국), 로엘린 리카르(프랑스), 이셀 멘도자 헤르난데스(멕시코)가 이번 공연 멤버들. 1번 이미지 ©Anna Anderregg, Photo by Nicole Pfister 2 퍼포먼스와 설치 작업으로 구성된 <얼론 투게더>는 디지털 환경으로 정찰된 도시 환경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개인 간 상호작용, 가상 연결, 고립 등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최근의 팬데믹 시대에 경종을 울린다. 백색 알루미늄의 직선 구조물은 휴대용 모듈 시스템으로 디지털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3 안무가이자 무용가 안나 안데레그, 한국에서 수차례 공연한 적이 있는 안데레그는 공간과 건축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왔는데, 제3회 서울무용영화제에서 협업의 인연을 맺은 김사라 건축가, 박수환 감독과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뭉쳤다. 5 <얼론 투게더>는 스위스 바젤/버덴에 위치한 문화 예술 기관인 콘스트하우스 파스페르트와 광주의 은암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스위스 대사관이 협력 기관으로 지원했다. 2, 3, 4 Photo by Swan Park



SWISS PAVILION





작이 잦지만 알찬 39일간의 축제

25년 남도록 자리를 지켜온 광주비엔날레도 팬데믹의 기세에는 흔들렸다. 작년 가을에서 올 2월로, 그리고 다시 4월로 미뤄지면서 예년에 비해 규모나 기간이 절반가량 줄었다. 오는 4월 1일부터 39일간의 장정을 펼칠 제13회 광주비엔날레에는 69명(팀)의 작가가 참여하고, 40점 정도의 커미션 신작을 선보인다. 판은 작이 잦지만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내실 면에서 꽤 알차 보인다. 비엔날레의 특성상 도시 곳곳의 전시장을 찾는 '발품'은 여전히 요구되지만 콘텐츠의 홍수로 인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이란 대주제는 서구 사회의 이분법적 구조와 관습에서 벗어나 확장된 세계와 '대안적 지성'을 탐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우리는 내부자와 외부자, 법과 불법, 남성성과 여성성을 철저히 구분 짓는 이분법을 넘어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확장하고 포용적인 실천을 지속해온 예술가, 사상가와 함께하고 있다"고 공동 예술감독 테페 아야스(Defne Ayas)와 나타샤 진발라(Natasha Ginwala)는 설명했다. 이러한 의지는 작가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아시아·아프리카 등 비서구 작가들의 참여가 늘고, 피지, 아이티 등 소규모 국가 출신도 눈에 띈다. 사버니즘·차유·억압된 역사 등 동시대 현안이라든지 증강 지능, 폭력적 알고리즘 등을 다루는 키워드 목록 역시 다채롭다.

도시 곳곳을 아우르는 전시 공간의 미학

매번 다채롭게 진화하는 전시 공간도 눈여겨볼 만하다. 풍장 터였던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라곤이 새롭게 추가되고 라이브 오르간 등 온라인 공간도 마련됐다. 주 전시 공간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용봉동)의 경우 5개 전시관이 저마다 다른 분위기로 연출되는데, 특히 1전시실은 역사상 최초로 대중에게 무료 개방된다(한국의 게이머들과 작업한 아나 마리아 밀란의 영상 작품 등과 더불어 민정기, 문경원, 이갑철 등 한국 작가를 포함해 모두 8명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광주 시민에 바치는 헌사라는 전시실 무료 개방은 5·18 민주화 운동의 이름을 예술로 승화한다는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취지와도 잘 맞닿는 듯하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삶과 죽음, 에도를 다루는 기획전을 꾸려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영상 작업으로 유명한 작가 테오 에세투(Theo Eshetu)가 박물관에서 촬영했다는 '유령의 춤이 공개될 예정이며, 리만 머핀 서울에서 개인전을 진행 중인 칠레 출신 시인이자 미술가 세실리아 비쿠냐(Cecilia Vicuña)도 만날 수 있다. '정의' 전시로는 아시아 미술관 최초로 열리는 대규모 개인전이라는 리암 길릭(Liam Gillick)의 <워크 라이프 이펙트>를 주목할 만하다(영주시립미술관), 글 **고성연**

1 아나 마리아 밀란(Ana María Milán), '행복한 사람들'(2020), 비디오게임, 디테일,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2 민정기, '소문'(1980), 캔버스에 유채, 130x162cm. 3 지화루 시모테(Shiola Chiharú), '신의 언어'(2020), 구 국립광주병원 설치 전경, 2020. ©SACK, 서울 2020과 지화루 시모테, 사진 이세현. 지난해 구 국립광주병원에서 공개된 GB 커미션 작품으로 이번에 다시 선보인다. 4 테오 에세투(Theo Eshetu), '고스트댄스'(2020), 비디오 스틸, 작가 제공. 5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 감독을 맡은 테페 아야스(Defne Ayas)와 나타샤 진발라(Natasha Ginwala)가 이번에 무료 개방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제1 전시실에서 촬영하고 있다.



〈한국 현대미술 거장展: 더 오리지널〉
Korean masters

저마다 선구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한국 현대미술사에 의미 있는 획을 그은 박래현, 김환기, 김창열, 유영국, 이우환이 한자리에 모였다. TV CHOSUN 개국 10주년을 맞아 아트조선과 공동 기획한 특별 기념전 〈한국 현대미술 거장展: 더 오리지널〉. 미술가 5인의 다채로운 작품 1백여 점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태동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3월 21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이어진다.

유영국의 비구상 풍경화부터 박래현의 테이프스트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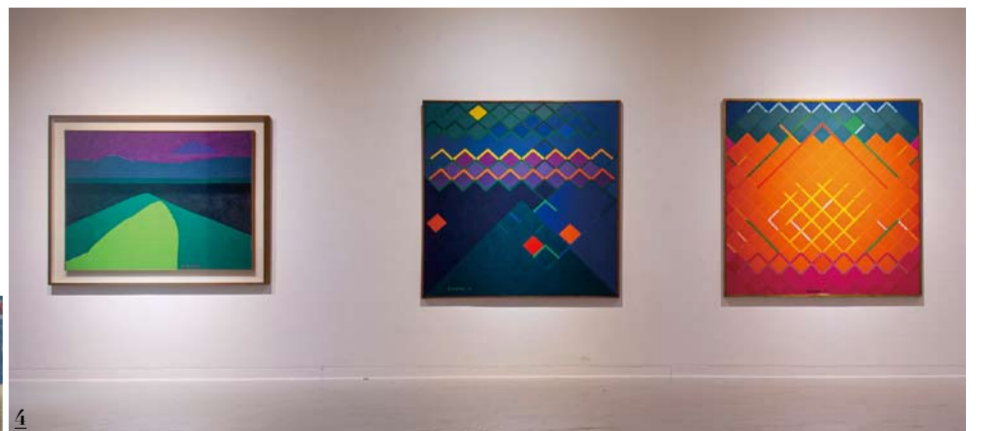
박래현, 김환기, 김창열, 유영국, 이우환... 이름 석 자만으로도 작품성과 예술성이 보증되는 5인의 거목이다. 이들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어 미술 애호가들의 이목을 끄는 〈한국 현대미술 거장展: 더 오리지널〉이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500㎡ 가까운 규모의 전시장이 가장 5인의 회화, 드로잉, 판화, 테이프스트리 등 다양한 미디어와 미공개 작품 1백여 점으로 채워져 빛을 발한다. 전시장에 들어선 관람객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작품은 유영국(1916~2002)의 회화. 과감한 원색 대비의 비구상 자연 풍경화는 기본 조형 요소와 강렬한 색채로 단순 미학을 추구했던 유영국의 예술혼을 그대로 대변한다. 기하학적인 질서라고 하면 경직되고 엄정할 것 같지만 그의 그림을 직접 마주하면 마치 실제의 풍광을 마주하는 듯 자연스러움이 묻어난다. 생전 "자연을 바탕으로 해 순수하게 추상적인 상태를 형상화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던 작가의 의도가 느껴지는 순간이다.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은 박래현(1920~1976)이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린 〈박래현, 삼중통역사〉전(展)에 걸렸던 작품 일부를 이번에 재공개한 터라 눈썹이 좋은 관람객 몇몇은 이를 알아채고 반색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몇 차례 문을 닫는 탓에 '삼중통역사' 전을 안타깝게 놓친 이들이 많았는데, 이번 전시가 그 아쉬움을 달래준다는 평이 많다. 1950년대 작품부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작한 1970년대 동관화까지 다채로운 구성이 눈을 호강시켜준다. 반세기 도 더 전에 탄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오늘날의 시각으로도 다분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박래현의 작품은 새삼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김환기의 전면적화는 물론 보기 드문 드로잉 작품도 등장

지난 1월 타계한 김창열(1929~2021)의 '물방울' 대작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전시에서는 1970년대 중반, 즉 비교적 물방울 초창기에 해당되는 시기, 마대에 그린 영롱한 물방울을 마주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그림자가 짙게 드러우지

않아 크리스털처럼 빛나는 물방울 그림(1976)이 눈길을 끄는데, 거친 질감의 마대와 그 위에 그려진 차가우리만큼 투명한 물방울이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묘한 화합을 이룬다. '국내 생존 작가 중 가장 비싼 작가'란 타이틀에 걸맞게 이우환(1936~)의 대작 앞에서 관람객들은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다. 'From Line', 'East Winds', 'With Winds', 'Dialogue' 등 다양한 시리즈로 국내외 경매에서 늘 인기를 끄는 이우환의 작품이 1백50호에 이르는 압도적인 크기로 걸렸기 때문.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좋은 것은 크게 봐야 한다"란 말처럼 이우환의 수작을 더욱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작품은 단연 김환기(1913~1974)의 드로잉이 아닐까 싶다. 그간 섬세하게 완성된 회화로만 접했던 김환기의 예술을 다소 투박하고 즉흥적인 드로잉을 통해 다른 시각으로 즐길 수 있어서다. 별다른 채색이나 장식 없이 신속 무심히 그린 듯한 스케치에서 김환기의 평소 시크하고 담백했던 면모가 읽히는 듯하다. 회화의 그 것과는 또 다른 거장의 천재성과 영민함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그의 대표작인 전면적화는 물론 달, 학, 연꽃 등을 소재로 마티에르가 도드라지는 화면이 특징인 1950년대 회화도 전시해 관람객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저마다 독보적인 스타일을 지닌 5인이지만 이들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이 있다. 작가 개인의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고 재조명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의 근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현대미술이 오늘날 위치에 서기까지 토양을 다지는 데 큰 몫을 한 다섯 작가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입장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제로 관람 가능하다. 월~일 10:00~18:00 문의 02-724-7832 글 **윤다행(아트조선 기자)** 에디터 **고성연**

1 TV CHOSUN 개국 10주년 특별 기념전 〈한국 현대미술 거장展: 더 오리지널〉에서 선보이는 김창열과 이우환의 작품. 2 이우환, 'Dialogue'(2014), 캔버스에 유채, 162.2x130.3cm. 3 김환기, '무제'(1960년대), 캔버스에 유채, 56.1x38cm. 4 눈길을 사로잡는 과감한 컬러 대비가 인상적인 유영국의 기하 추상화. 5 현대적인 감성이 물씬 배어있는 박래현의 재해석한 이번 전시의 빠질 수 없는 공간 포인트.



2021 S/S Trend Report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2021 S/S 시즌 대부분의 패션쇼는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되거나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됐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여러 패션 하우스와 디자이너들은 저마다 독창성을 발휘해 창의적 컬렉션을 펼쳐 보였고, 덕분에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보다 친밀하고 진정성 느껴지는 방식의 교감을 이룰 수 있었다. 희망과 사랑, 연대 등의 긍정적 메시지를 담은 2021 S/S 시즌 남녀 컬렉션의 주요 트렌드 10가지를 소개한다.

women's trend 1. New Trench Coat

클래식의 상징이자 환경이 필수 아이템인 트렌치코트. 이번 시즌 디자이너들은 소재, 컬러, 실루엣, 디테일에 걸쳐 기존과 차별화된 요소를 적용, 보다 다채로운 무드로 단정한 트렌치코트를 선보였다. 코튼 캐버린, 폴리미리우 소재를 집중해 볼륨감 넘치는 퍼프 슬리브와 플리츠 디테일을 갖춘 낭만적 트렌치코트로 주목받은 시라 버튼의 알렉산더 맥퀸, 데님과 레더를 믹스한 트렌치코트로 하우스 고유의 DNA에 동시대적 에너지를 이식한 리카르도 티시의 바버리, 몸에 가볍고 유연하게 감기는 실용한 소재로 파자마 기운처럼 힘을 뺀 트렌치코트를 선보인 발렌티노 카미오니의 토즈 컬렉션이 대표적이다.

women's trend 2. Clever Cut-outs

시원하게 등을 드러낸 자칫상의 관능적인 배어 백 드레스부터, 여자가 귀여운 구멍이 난 미려한 프라다의 니트와 저지 물에 이르기까지. 2021년 S/S 시즌을 대표하는 장식적 디테일은 바로 '컷아웃'이 아닐까? 이는 룩에 특정한 분위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시각적 재미를 더하고, 전체적인 실루엣과 핏을 완성하는 역할까지 한다. 후고 보스는 자칫 광범해 보일 수 있는 니트 롱 드레스의 어깨, 허리, 다리에 비대칭의 과감한 컷아웃과 슬릿을 가미해 은근한 긴장감을 부여했다. 한편 오프 화이트가 선보인 누드 저지 드레스에서 압축의 컷아웃 디테일은 어깨의 과장된 패드 장식과 어우러지고, 허리 부분의 큼직한 컷아웃은 드루스트링과 만나 드레이퍼리를 연출하며 드레스의 실루엣을 보다 입체적으로 완성했다.

women's trend 3. Bralette for Everyone

몇 년 전 런처리 룩 트렌드와 맞물려 키 아이템으로 떠올랐던 브라렛과 브라 튜이 다시 한번 런웨이를 점령했다. 에디 슬리언의 셀린느 쇼에 등장한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제네레이시 2인 쇼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편견은 버릴 것. 물론 물 빠진 데님과 첼시 부츠, 폭 늘러슨 배이스볼 캡과 더불어 잘 어울리지만, 우아하고 정제된 룩에도 근사한 조화를 이룬다. 셋업 슈트, 레빈 점프 슈트, 레더 블루즈 등에 앙가주, 실크 소재 브라 튜를 매치해 당당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은 여성성을 그린 에르메스, 브라렛을 매치한 쿨하고 모던한 에티튜드의 슈트 룩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후고 보스, 주얼 장식과 자수 디테일 캐시미어 브라렛으로 사랑스러움을 강조한 사벨 등 빅 패션 하우스의 스타일링을 참고하자.

women's trend 4. Glam Vibes

시련과 비즈, 루렉스, 메탈릭 등 은각 반짝이고 빛나는 소재의 향연이 펼쳐졌다. 현재와 미래, 디지털과 피지컬, 여성과 남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을 경향하게 한 니콜라 제스카에르의 루이 비통 쇼에선 시련으로 수놓은 오버사이즈 재킷과 팬츠, 티셔츠, 메탈릭 레더 핸드백 등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수백 개만 크고 작은 메탈 조각으로 이뤄진 드레스의 청량거리는 소리와 눈부신 빛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운 파코 라반 쇼, 맨서들의 에너제틱한 움직임과 어우러진 메탈릭 글램 룩을 선보인 이자벨 마랑까지, 각자의 컬렉션과 쇼 파스들이 가미되는 방향이 레트로, 퓨처리즘 혹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던 분명한 건 참치된 일상에 활기와 에너지를 불어넣는 패션의 긍정적 역할을 상기시켰다는 것.



Glam Vibes. MIU MIU

New Trench Coat. BURBERRY

Glam Vibes. LOUIS VUITTON

Pastel Magic. SALVATORE FERRAGAMO

Sliders with Socks. DIOR MEN

Sliders with Socks. FENDI

women's trend 5. B & W Monochrome

펜디, 에르메스, 파라기모, 프라다, 후고 보스 등의 빅 패션 하우스를 필두로 다시 미니멀리즘이 영역을 확장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블랙 & 화이트 모노크롬 룩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워드르보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컬러인 만큼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극도로 간결한 동시에 힘 있는 연출이 가능한 만큼 각 아이템의 소재와 핏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실루엣이나 길이에 따른 프로포션 플레이를 펼쳐가며 매우 효과적. 화이트 액세서리로 시선을 분산시킨 펜디의 우아한 올 블랙 코트 룩, 스킨 컬러에 가까운 화이트 슈즈를 매치하고 다리를 시원하게 드러낸 발렌티노의 영리한 스타일링이 돋보인 블랙 재킷 & 화이트 셔츠 룩 등을 참고해보자.

men's trend 1. Pastel Magic

Teenage Dreams라는 타이틀 아래 만개한 꽃밭 위로 소년, 소녀들이 걸어 나온 리브 시몬스의 쇼에서 북고풍의 타이틀로 터닝포인트 니트 베스트, 플러터 팬츠 차림이 대담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으로 보인 건 핑크부터 라임록 컬러에 이르는 다채로운 파스텔컬러의 역할이 컸을 터. 밝은 컬러와 패턴의 페인팅 작업으로 유명한 아스트 이도아코 보야포(Amoako Boao)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킴 존스의 예술적 교감을 바탕으로 한 디올 셔츠 컬렉션에서도 화려적인 파스텔컬러의 사용이 단연 돋보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상황에서 브랜드의 발전 방향성을 모색했다는 MSGM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시모 조르제티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충만한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청춘들의 젊고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는 스트리트 웨어 무드의 룩 대부분이 파스텔 톤을 기반으로 한다.

men's trend 2. Sliders with Socks

한때는 많은 이들이 워스트 패션으로 손꼽던 일명 '아저씨 룩'의 상징인 양말과 슬리퍼의 조합이 동시대 남성 패션계에서 가장 쿨한 스타일링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런웨이와 리얼 웨어를 망라하고 남성의 쇼츠 길이가 점차 짧아지면서 하의 스타일링에 방점을 찍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 컬러풀한 삭스를 매치한 청량한 슬라이드는 이번 시즌에도 여러 컬렉션에서 존재감을 제대로 발휘한 모습. 로프, 메시, 스웨이드, 러브 등 소재의 믹스 매치가 돋보이는 스포티브한 샌들 아래로 화려한 오를리크 패턴 삭스를 더한 디올, 우아한 하늘색 리본 쇼츠 슈트에 화이트 롱 삭스와 리미아 슬라이드를 매치한 펜디, 실감나는 그린 컬러 쇼츠 슈트에 크림색 니트 삭스와 투박한 버클 슬라이드를 매치한 후고 보스 등이 대표적인 예.

men's trend 3. Flower All Over

자연만큼 인간에게 큰 위로를 건네는 대상이 또 있을까? 일찍이 이를 간파한 디자이너들은 모두다 '정서적 불이' 도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색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해 옷 위에 꽃을 피웠다. 레드, 블루 등 원색의 꽃을 통통프루우 기반으로 강렬하게 표현한 겐조, 그레이와 블랙 컬러 그래픽으로 캔버스 패브릭 위 은은한 호르텐시아 그림자가 이르기에는 듯한 서정적인 무드를 표현한 펜디, 하우스의 장기간 심세한 임브로이더리 기법과 입체적인 프링팅 기술을 다채롭게 동원한 발렌티노 등. 샌슈얼과 캐주얼을 넘나드는 플러워 패턴의 매력은 울분과 여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men's trend 4. Various Stripes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예선생한 체크, 스트라이프 패턴이 갠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응용한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스트라이프 패턴은 클래식한 무드에 머물기보다 경쾌하고 세련된 컬러 배리어이션, 패턴 믹스 등으로 색다른 분위기 연출을 꾀한 모습. 레드, 블루 스트라이프 상하의에 플러워 패턴 이너를 매치한 폴 스미스, 스트라이프 슈트에 컬러 블로킹을 가미해 시각적 화려함을 극대화한 돌체앤가바나 등을 살펴볼 것. 이처럼 과감한 패턴 믹스가 부담스럽다면 에르메네제스토 제니, 디올의 런웨이에서 발견할 수 있듯 톤 다운된 뉴트론 룩의 진정한 스트라이프를 조합하면 된다. 아이템을 매칭하기 쉬운 것은 물론 세련된 무드가 극대화될 테니. 상하의 아이템의 컬러를 달리 연출하거나, 줄의 간격과 굵기에 변주를 주는 것도 해-'워' 팀. 가로나 사선 스트라이프, 무지 아이템으로 적당히 흐름을 끊어주는 것도 또렷한 연출법이다.

men's trend 5. Chic Utility

'유틸리티'는 매 시즌 남성복 트렌드를 다룰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다. 실용성과 기능성에 기반을 둔, 다소 투박하고 거친 디자인으로 대표되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아성에서 즐길 법한 사파리 룩, 밀리터리 룩을 떠올리면 곤란하다. 수많은 빅 사이즈 아웃 피켓, 드루스트링과 지퍼, 버튼 장식 등의 기능적 디테일을 고수하는 동시에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모던하고 정제된 무드를 접목한 새로운 유틸리티 룩이 대세-니까, 수작업으로 연출한 그래픽이 돋보이는 가벼운 리본 코트 훈방 소재의 사파리 재킷에 셔츠 컬러와 가죽 스트링을 더한 토즈, 견고한 테일러링과 스티치 디테일이 돋보이는 오지티 브라운 컬러의 레더 소재 버튼 다운 필드 재킷을 선보인 벨루티, 그 밖에 디올, 후고 보스, 에르메네제스토 제니, 겐조 컬렉션의 이번 유틸리티 룩을 참고해보자.



Various Stripes. GIORGIO ARMANI

Chic Utility. BOSS MEN

Flower All Over. TOM FORD

Flower All Over. KENZO

B&W Monochrome. VALENTINO

Clever Cut-outs. OFF-WHITE

magic number 5

세상에 없는 향, 그것도 인공향을 개발하며 전설적인 향수 N°5로 여심을 뒤흔든 창의적인 도전 정신. 보석 공예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유니크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인 열정과 용기. 올해 샤넬은 향수 N°5 탄생 1백 주년과 곧 다가올 비주드 다이아몬드 탄생 9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하이 주얼리에서 특별한 컬렉션과 전대미문의 네크리스를 선보이며 가브리엘을 기념하기로 했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로맨틱한 제안. 바로 올해의 '컬렉션 N°5'다.

가브리엘은 1912년 휴양 도시 도발에 새로운 상점을 열었고, 한발 더 나아가 의상에 도전했다. 그리고 1918년 다시 파리 강북가 31번지에 안착한 후엔 자유로운 20세기 여성을 위한 향수를 구상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5을 세상에 선보였다. 지금 시각에서 보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가기 위한, 확장의 한 방법 정도로 생각될 수 있는 향수 개발.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는 도전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유는 당시 향수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첫 패션 디자이너였다는 것, 한 가지 꽃향기를 담은 향수가 유행하던 시절에 잘 배합한 인공향 향수를 출시했다는 것,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과장된 서정성과는 반대로 단순한 숫자를 이름으로 선택했다는 것 때문이다. 가장 잘나가던 시기, 정상에 올랐을 때 안주하지 않고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 했던 가브리엘의 열정과 노력은 1932년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유일무이한 컬렉션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 증명되었다. 프랑스 하이 주얼리의 관례를 뒤흔든 이 비주드 다이아몬드(Bijoux de Diamants) 컬렉션은 획기적인 디스플레이 방식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백함과 장밋빛 피부로 화장하고, 손상되지 않은 실제 모발로 머리를 손질한 밀랍 마네킹에 보석을 매지해 주얼리와 착용한 이의 조화로우움을 보여 주고자 한 것. 이 방법은 투명 케이스 안 검은 벨벳을 깔고 그 위에 주얼리를 올려놓던 당시의 공식과도 같은 하이 주얼리 디스플레이와 비교하면 대단한 파격적인 아이디어였다. 비주드 다이아몬드 컬렉션은 그녀가 아끼는 숫자 5, 별의 미술과 태양의 광선, 리본의 유동성, 술 장식의 즐거운 분위기와 깃털의 가벼움, 여기에 오바진의 고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 기억 등을 주얼리로 표현해 새로운 매력의 영역으로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N°5 향수 탄생 1백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샤넬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의 디렉터 패트리스 르게루(Patrice Leguéreau)가 2021년 향수와 하이 주얼리라는 두 가지



영역을 '컬렉션 N°5(Collection N°5)'를 통해 하나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가브리엘 샤넬은 대담함과 뛰어난 추구를 하며, 동일한 선구적 가치를 지니고 이 두 가지 우주에 접근했습니다. 이번 컬렉션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창의성을 재발견하고 싶었죠. 그래서 보틀 디자인부터 폭발적인 향에 이르기까지 N°5 향수의 영혼을 탐험하는 여정 같은 컬렉션을 고안했습니다.” 향수에 바치는 최초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컬렉션 N°5. 이번 컬렉션의 절정은 향수의 모든 코드를 표현한 눈부신 55.55 네크리스다. 55.55캐럿의 커스텀 컷 다이아몬드를 통해 N°5

1 N°5 향수 탄생 1백 주년과 내년에 탄생 90주년을 맞는 비주드 다이아몬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기념하는 '컬렉션 N°5'. 그 주인공인 55.55 네크리스. 2 가브리엘은 N°5 향수의 모델이기도 했다. 3 1920년대 당시의 향수 일러스트레이션. 4 보기만 해도 눈이 부신 55.55캐럿 다이아몬드 커스텀 컷에서 N°5 향수 케이스의 모던함이 느껴진다. 5 55.55네크리스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



의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데 이는 전혀 없는 접근법이라고,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은 가장 큰 보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55.55캐럿의 완벽한 팔각형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토퍼의 옆모습, 보틀의 실루엣, 럭키 넘버 5 형태의 잠금장치, 하나씩 커팅한 다양한 크기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가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디자인은 향수에 바치는 궁극의 찬사다. 이 네크리스는 에메랄드 컷의 조화로운 형태, 55.55캐럿의 상징적인 무게, D-F 등급의 다이아몬드, 1백4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와 42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베젤을 통해 샤넬의 완벽주의, 그리고 놀라운 창의성과 기술 수준을 보여준다. 관념적이면서 비유적인 55.55 네크리스는 단순한 스타일이 아닌 향수 N°5의 정신과 최고의 주얼리 제작 기술의 결합이다. 비할 데 없이 유연한 구조의 이 매혹적인 네크리스를 샤넬 소장품 컬렉션으로 보존해 앞으로도 이야기를 이어나갈 예정. 샤넬 하이 주얼리 역사의 영원한 일부이자 방돔 광장과 N°5 향수를 이어주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의 상징이 될 것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샤넬 워치 앤 화인 주얼리의 사장 프레데릭 그랑지에(Frédéric Grangié)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Q 55.55 네크리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라. 프레데릭 그랑지에(Frédéric Grangié, 이하 FG) 샤넬의 근간인 동시에 화인 주얼리에 꾸준한 영감을 주는 가브리엘 샤넬의 대담한 비전을 빼고서는 이 네크리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1921년 에르네스트 보(Ernest Beaux)와 가브리엘 샤넬이 만든 최초의 '여인의 향을 담은 여성을 위한 향수' N°5는 당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절대적 모던함을 자랑하는 인공적인 향, 깔끔한 보틀, 신비로운 이름으로 N°5는 향수업계에 혁명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2년 가브리엘 샤넬은 또 다른 세계에 혁신을 일으켰는데,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그녀의 유일무이한 컬렉션으로 프랑스 하이 주얼리계를 놀

라게 한 것이다. 곧 탄생 90주년을 맞이하는 비주 드 다이아망(Bijoux de Diamants) 컬렉션은 새로운 주얼리 착용 방식을 소개하며, 주얼리를 새로운 매력의 영역으로 이끌었다. 55.55 네크리스를 포함해 1백23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통해 구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향수와 주얼리가 공유하는 대담함과 비전으로 가득 찬 샤넬의 역사다. 관념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이번 컬렉션의 상징인 55.55 네크리스는 단순한 스타일이 아닌 N°5의 정신과 가장 특별한 주얼리의 결합을 상징한다. 스토퍼의 옆모습이나 N°5 향수 보틀을 닮은 실루엣, 럭키 넘버 5 형태의 잠금장치, 그리고 컬렉션의 농축된 부케(bouquet)를 상징하기 위해 하나씩 손수 조절한 페어 컷 다이아몬드 드롭으로 모든 면에서 특별한 작품을 완성했다. 다른 샤넬 제품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창조 행위, 즉 N°5 향수만큼이나 마법 같은 보석이 선사하는 독특한 창의적 표현을 통해 태어났다.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안정적인 형태, 완벽한 에메랄드 컷, 55.55캐럿이라는 상징적인 무게,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이 눈부신 다이아몬드는 샤넬의 완벽주의, 그리고 놀라운 창의성과 기술 수준을 보여준다.

Q 왜 유산에 중점을 둔 작품을 만들게 되었나? FG

샤넬에 있어 이번 네크리스의 디자인과 제작은 화인 주얼리 역사에서 이룬 결정적이고 중요한 진일보를 상징한다. 이 네크리스는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고 방돔 광장 18번지에서 샤넬의 소장품 컬렉션으로 보존할 예정이다. 아마 시간이 흘러도 샤넬 화인 주얼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오보제가 될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잠시 전시할 수도 있으며, 샤넬의 고객과 언론에 방돔 광장과 N°5 향수의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보여주는 영원한 물리적 상징이 될 것이다.

Q 이번 독특한 작품을 통해 샤넬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FG

샤넬은 언제나



1 샤넬 워치 앤 화인 주얼리의 사장 프레데릭 그랑지에. 2-5 55.55 네크리스는 최초 디자인 스케치부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 긴 시간, 꿈이 현실이 되는 이 감탄스러운 과정을 샤넬의 하이 주얼리 아틀리에 모든 장인들이 함께했다.



가브리엘 샤넬의 재능과 대담한 비전을 기념하고자 한다. 샤넬의 모든 제품은 우리 브랜드의 정수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 네크리스가 그 증거 중 하나다.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시작했지만 가장 큰 보석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큰 보석을 세팅한 네크리스로 기억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상징적인 무게인 55.55캐럿의 완벽한 팔각형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이를 통해 창조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오직 샤넬 하우스에서만 가능한 전례 없는 과정이었다.

Q 이번 컬렉션의 1백23개 제품으로 또 어떤 측면을 다루었는가? FG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전에 없던 규모다. 제품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샤넬에서 선보인 하이 주얼리 컬렉션 중 최대라고 할 수 있다. N°5 향수 보틀 디자인부터 잔향, 스토퍼, 그리고 N°5를 구성하는 숫자와 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1백23개의 제품을 통해 드러냈고, 향수의 특징적인 요소를 표현했다. 예를 들어 다채로운 옐로, 앰버, 핑크빛으로 빛나는 보석은 N°5 향수의 색을 나타낸다.

Q 이 네크리스의 모든 제작 과정을 지켜봤을 텐데, 그 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FG 55.55 네크리스 덕분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놀라운 모험을 할 수 있었는데, 세 가지 중요한 순간이 있었다. 우선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의 디렉터 패트리스 르게로가 내게 디자인을 보여준 순간, 꿈이 실현 가능한 현실로 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 후 원석과 만남이 있었고, 이 아름다운 보석을 상징적인 55.55캐럿으로 커팅하기로 한 결정적인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하이 주얼리 아틀리에와 함께한 모든 순간, 이들의 노력,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가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2년 후 최종 제품을 확인하던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Q 샤넬의 하이 주얼리에 대한 접근법이 2021년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FG

1932년 가브리엘 샤넬이 유일무이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 '비주 드 다이아망'을 만들었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하이 주얼리에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방돔 광장 보석상의 세계에 패션 디자이너가 발을 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혁명이었다. 가브리엘 샤넬이 우리에게 남겨준 모든 것이 여전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샤넬의 역사에 충실할 것이며, 동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창조의 자유를 통해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미래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창조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창조가 있다. 모든 것은 디자인, 즉 하이 주얼리와 이를 착용할 여성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샤넬 컬렉션의 변화와 다채로움이 이를 증명한다. 2009년 설립되어 패트리스 르게로가 이끄는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의 목적은 1932년 가브리엘 샤넬이 시작한 가치, 즉 샤넬의 DNA를 구성하고 샤넬을 차별화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컬렉션을 만드는 것이다. 향수에 바치는 최후이자 유일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인 '컬렉션 N°5'가 살아 있는 증거다.

Q 2020년을 어떻게 넘겼나? 샤넬에 변화는 없었는지? FG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를 위협한 보건 위기로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신속하게 모색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와 하이 주얼리 아틀리에에는 2개의 주요 연례 하이 주얼리 컬렉션인 '베니스에서의 경유(Escale à Venise)'와 '컬렉션 N°5'를 준비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런 전례 없는 시기에도 부단히 노력해준 크리에이션 스튜

디오와 하이 주얼리 아틀리에, 그리고 모든 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Q 이번 새로운 화인 주얼리 컬렉션을 요약하는 5개의 키워드나 표현이 있다면?

FG 우선 샤넬이다. 샤넬 하우스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에 바치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창조다. 이 55.55 네크리스와 이번 컬렉션은 샤넬 하이 주얼리의 창조적 정체성을 구현한 것이다. 세 번째는 장인 정신이다. 샤넬 제품의 우수함은 샤넬의 장인 정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럭키 참이 넷째다. 숫자 5는 가브리엘 샤넬이 가장 좋아했던 숫자이며, 하우스의 럭키 참이다. 이번 컬렉션과 네크리스는 샤넬에게 바치는 강렬한 헌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2년 가브리엘 샤넬이 했던 말을 인용하겠다. “내 주얼리는 여성과 여성의 드레스를 항상 고려한다.” **에디터 정유은**





afternoon

봄 햇살, 봄바람. 여유롭지만 사프함이 느껴지는 남자의 기록.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버블 부클레 소재의 니트
카드igan 2백73만5천원, 팬츠
2백22만원 모두 **보태가 배너다.**



그레이 컬러 래더 재킷,
그린 컬러 니트 롱, 스트라이프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심비토레 페라기오.**



가시리셔츠의 룩
241,011원, 레더 칼라 셔츠
84,000원, 브라운 컬러 코듀로이
팬츠 1백92,000원, 레더 샌들
1백31,000원 모두 구찌.



그린 컬러 니트 톱,
블루 컬러 팬츠 모두
가죽 미장 에르메스.

그레이 컬러 재킷 4백50만원대,
화이트 컬러 셔츠 1백만원대,
그레이 컬러 팬츠 1백50만원대
모두 프라다.



그레이션 코트
6백만원대, 블랙 컬러
V넥 니트 베스트 가격 미정,
팬츠 1백만원대 모두 프라다.



브라운 컬러 재킷 6백10만원
화이트 컬러 셔츠 가격 미정,
퍼플 사이드 라인 팬츠
1백10만원 발렌타노,
화이트 스니커즈 97만원
발렌타노 가브리니.

그레이 컬러 체크 & 베이지 컬러
트렌치코트 9백39만원,
화이트 컬러 셔츠 가격 미정,
체크 팬츠 1백21만원,
화이트 컬러 레이스업 부츠 92만원
모두 알렉산더 맥퀸.

헤어 이일중
메이크업 김도현
모델 정화준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실버톤의 레인카코트 02-3430-7854
보타가 메네타 02-3438-7682
에르메스 02-542-6622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프라다 02-3218-5331
구찌 1577-1921
펜디 02-514-0652
발렌타노 02-2051-4653



실버톤의 레인카코트 02-3430-7854
보타가 메네타 02-3438-7682
에르메스 02-542-6622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프라다 02-3218-5331
구찌 1577-1921
펜디 02-514-0652
발렌타노 02-2051-4653

4천만원부터 4억원대까지, 차박 자동차

자동차는 또 하나의 개인 공간이자 집 다음으로 크고 비싼 공간이다. 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차박'이 유행이다. 어떤 차든 차박은 가능하지만 넉넉하면 더 편하다. 공간 넉넉한 가격대별 차박 자동차를 뽑았다. 선정하면서 상상력도 좀 발휘했다.



팬데믹이 우리를 묶어놓았다. 밖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점점 차오르는 답답함을 풀어낼 방법이 요원하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걱정은 항상 따라붙는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사람들은 답답함 속에서 잠깐이나마 숨을 돌리는 방법을 모색했다. '차박'도 그중 하나다. 차박은 텐트 없이 차에서 잠자며 캠핑하는 방식을 뜻하는 신조어다. 캠핑의 한 종류로, 차박은 예전부터 있었다. 상황이 상황이라 지금은 꽤 늘었다. 보다 단순하게, 한결 간편하게 떠날 수 있으니까. 어쩌면 차박 유행은 당연한 흐름인지도 모른다.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큰 개인 공간이니까.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난 흐름은 당연하다. SUV가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떠올랐다는 정도 무시할 수 없다. 넉넉한 공간성이 차박 흐름의 물꼬를 텄다. 차박과 잘 어울리는 자동차는 무엇보다 공간성이 넓은 공간이 클수록 될 공간도 커진다.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와 앞이나 평평한지도 따지지만 사실 절박적인 않다. 아차피 잘 매어 매트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은 필수다. 딱딱한 바닥에서 잘 수 없지 않다. 또 전기를 원활하게 쓰려면 파워뱅크와 인버터가 있어야 한다. 그냥 차 타고 가서 자는 경우는 없다. 결국 공간이 넓거나 넉넉한가 하는 점이 차박의 질을 결정한다. 무엇보다 공간이다. 이 기준에 맞춰 가격대별로 차박과 잘 어울리는 자동차 10대를 뽑았다. 물론 공간과 더불어 몇 가지 요소도 영향을 미쳤다. 차박을 하러 가는 도중, 차별화된 차박 장소, 차에서 보내는 시간 등도 고려했다. 예산에 맞춰 무엇을 선택하든 차박으로 차와 추억을 만들기엔 충분하다.

아기자기하거나 운치 있거나

4천만원대부터 시작해본다. 그중에서도 좀 신선하고 독특한 차를 골랐다. 시트로엥 그랜드 C4 스페이스 투어러. 시트로엥은 독특한 차를 내놓기로 유명한 브랜드다. 프랑스의 전위적인 디자인을 차에 서슴없이 적용한다. 그러면서도 지극히 실용적인 활용도도 추구한다. 두 아이자가 미묘하게 총동하기에 시트로엥의 차는 하나같이 독특하다는 평이 따른다. 그랜드 C4 스페이스 투어러라는 긴 이름이 곧 특성을 드러낸다. 시트로엥의 C4를 기본으로 공간을 늘린 미니밴 형태의 자동차. 크기는 위압적이지 않지만 공간은 광활하다. 차체 길이는 아반떼와 비슷하게 공간을 뿜어내는 휠베이스는 싼티페와 팔리세이드 사이다. 계가 7인승(물론 3열은 어른이 앉기엔 곤혹스럽다). 이 마법 같은 공간성에는 전륜구동 차를 주로 만들어낸 시트로엥의 노하우가 담겼다. 특히 개방감이 뛰어나다. 앞 유리 면적이 보통 차보다 넓다. 선이저를 더 얇게한 하늘이 그대로 드러난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자동 자체가 유리창이다.

햇살 가득한 날, 2열과 3열을 접고 누우면 실내에서도 일광욕을 즐길 수 있다. 실내의 인락함을 유지하면서 타 인공광을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 차박의 묘미가 이것 아닌가. 5천만원대는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볼보는 지금 가장 뜨거운 브랜드다. 그동안 쌓아온 전통과 새로 바뀐 인식이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 기함 SUV XC90부터 콤팩트 SUV XC40까지 어느 것 하나 인기는 모델이 없다. 사려면 대가도 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다려서 산다는 건 인가의 방증이다. 그중 V60 크로스컨트리는 볼보의 정체성으로 뚫돌 뚫돌 모델이다. 세단에 장안을 늘린 왜건에, SUV처럼 전고와 지상고까지 더했다. 시륜구동은 기본이다. 세단의 승차감에 왜건의 공간, SUV의 힘로 주파력까지 조합한 형태란 뜻. 스웨덴의 자연환경과 삶의 형태를 반영한 모델이다.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1,441L. 공간은 넉넉하다. 차량 형태도 애초 레저용이니까. 최근 볼보는 특히 공간의 질에 신경 썼다. 질 좋은 가죽, 촉감 좋은 나무, 반짝이는 하이글로시를 적절한 비율로 조합했다. 딱 필요한 부분에 간결하게. 덕분에 공간이 고상하고 담백하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워낙 물러도 V60 크로스컨트리 실내에 들어오면 어렴풋이 알 가다. 게다가 오디오도 B & W 시스템까지 적용했다. 선정하고 풍성한 음질은 공간의 질을 높인다.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차박의 질을 높여준다. 6천만원대는 대형 SUV의 터줏대감 포드 익스플로러다. 팔리세이드가 나오기 전부터 국내에서 대형 SUV의 상으로 굳혔다. 크고 3열도 있으며 네 바퀴를 굴리는 다부진 SUV.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익스플로러는 대표 모델이다. 최근 현재적 인상으로 바꾸고 다이나믹도 했다. 2.3 예로부터 엔진으로 이름 높였는데도 신경 썼다. 익스플로러의 무기는 광활한 공간. 트렁크 공간만 515L이다. 3열을 접으면 1,356L로 늘어난다. 2열까지 접으면 무려

2,486L로 늘어난다. 텐트도 1인용이나 4인 가족용이 아니라 쾌적함이 달라지지 않다. 2,486L는 차박차보다는 방 수준이다. 게다가 접으면 바닥도 평평하다. 차박 맞춤형이다. 8천만원대는 랜드로버 디펜더. 디펜더는 랜드로버의 정통 오프로더다. 70여 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존재해왔다. 영국의 농업용 자동차였으며 패전 이후에도 활약했다. 작년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국내에 출시했다. 과거 디펜더 DNA를 보존하며 인맥을 현대적으로 바꾸었다. 랜드로버의 패밀리 룩을 입으면서 디펜더만의 특징을 살린 셈이다. 예전에는 톨나 불리는 아날로그 기계처럼 달렸다. 이제는 첨단 전자 제동처럼 말끔하게 달린다. 지프 랭글러와 달리 럭셔리 오프로더로서 새로운 실을 계획한다. 힘로 주파력은 흐른 세월만큼 진일보했다. 길타든 아니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은 차박의 영역을 넓힌다. 남들 다 가는 곳이 아닌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한다. 육각 볼트를 장식으로 표현한 티프한 디펜더만의 실에서 보내는 하루는 꽤 본격적인 야생을 느끼게 한다. 2열을 접으면 2,380L가 펼쳐지니 공간도 충분하다. 바닥도 평평하게 떠진다. 디펜더라면 색다른 테마 차박을 선사한다.

공간의 질이 남다른 차

프리미엄 브랜드의 기함 SUV는 만능이라 부를 만하다. 고급스러운 인막, 광활한 공간, 풍성한 주행 질감 등 브랜드 총력을 기울여 만들어냈다. 즉 어떤 길 골라도 호사로운 차박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가는 길이 편안하고, 공간도 충분하며, 힘로도 문제없다. 브랜드와 가격, 인막 스타일에 따라 고르면 그만이다. 한하게 골라보면 가격이 높지만, 그만큼 풍요롭다. 1억원대로는 아우디 Q8이 있다. 아우디의 기함 SUV Q7에 몇을 가미한 SUV다. SUV에도 쿠페 형태를 차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Q8은 보편적인 쿠페 형태를 취한 SUV와는 다르게 지붕만 깎지 않았다. 전체 비율을 보다 낮고 넓게 빚어 스포티함을 강조했다. 가대만 실을 프레임 그림에 두툼한 테두리도 더했다. 목 떨어지는 아우디 헤드램프와 결합해 압도적인 전면 인상을 형성한다. 자연과 잘 어울리는 외관은 아니지만, 차박을 즐기는 현대인이 탐낼 외관이다. 실내 역시 첨단 감각을 뽐낸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실내를 채워 미래 지향적이다. 질감 좋게 다듬은 실내 각 부분은 아우디의 감성. 넓고 낮은 SUV로서 편안한 주행 질감을 선사한다. 시륜구동 코트로 덕분에 외오와 상관없이 험한 길도 성큼 나아간다. 2열을 접었을 때 공간은 1,755L. 광활하진 않지만 답답할 리 없다. 차박에 필요한 요소로 충분하다. 1억1천만원대는 테슬라 모델 X. 전가차다. 게다가 도어가 위로 열리는 걸형 도어도 품었다(테슬라는 팔콘 왕리 부른다). 자연과 가장 동떨어지게 느껴지지만 의외로 잘 어울린다. 전가차는 차박에 필요한 전기를 사 용하기에 편하다. 이미 차체에 카다만 배터리를 품었으니까. 시동 키지 않고 배터리로 에어컨 등 공조 장치를 켤 수 있다. 8시간 에어컨을 켜면 배터리를 20~30% 정도 소모한다고. 충전 지점만 잘 계산하면 번거롭게 파워뱅크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1 V8 엔진을 품은 벤츠는 벤츠가 제 1하는 할리우적인 벤츠가 아닌 셈이다. 2 고급스러운 오프로더로 진화한 2세대 디펜더. 3 독특한 디자인, 뛰어난 공간성이 돋보이는 시트로엥 그랜드 C4 스페이스 투어러. 4 BMW의 기함 SUV X7. SUV인데도 달리는 즐거움을 빼놓지 않았다. 5 메르세데스-벤츠가 S클래스 같은 SUV라고 선보인 GLS. 6 위로 날개처럼 열리는 팔콘 왕의 테슬라 모델 X의 상징이다. 7 컬러로운 SUV인데도 롤스로이스다운 기품을 유지한다. 8 수입 대형 SUV의 터줏대감, 포드 익스플로러. 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9 볼보의 브랜드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델. V60 크로스컨트리. 10 럭셔리 SUV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아우디의 한 수, 아우디 Q8.



모델 X는 테슬라의 기함 SUV 전가차로 공간도 넉넉하다. 최대 2,577L를 자랑한다. 무엇보다 앞 개방감이 뛰어나다. 앞 유리가 무려 장수까지 이어진다. 커다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홀로 중앙에 놓인 단순한 실내에 남다른 개방감이 지 더해져서 공간 자체가 신선하다. 팔콘 왕을 열고 실내에 앉아 차박을 준비하면 독특한 기분에 흠뻑 젖어 모른다. 이것이 미래의 차박인가, 하면서. 이런 차박이라면 특별할 수밖에 없다. 1억2천만원대에는 BMW X7이 군림한다. 갈수록 큰 차를 찾는 사람들의 욕구를 조종한 BMW의 대형 SUV다. X5보다 무려 264mm나 길다. 폭도 2m다. 기본 트렁크 용량은 326L. 3열을 접으면 750L, 2열까지 다 접으면 2,120L. 공간을 확보한다. BMW는 달리는 즐거움을 강조하는 브랜드다. 대형 SUV인 X7에도 이 성격이 그대로 담겼다. 대형 SUV인데도 바퀴를 옮겨주고 달리는 승차가 수준급이다. 차박 차체보다 하려 가는 길이 더 즐거울 수 있다. 실내는 기존 BMW 인테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기함 SUV인 만큼 실내 질감에 신경 썼다. 이곳저곳 가죽으로 포근하게 감쌌다. 같은 형태에도 크고 질감에 따라 달라진다. 단지 크기만 큰 X5가 아닌 나뉠의 기품을 품었다.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차박의 질을 높인다. 1억3천만원대는 메르세데스-벤츠 GLS.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형 SUV로 2006년 GL클래스로 처음 등장했다. 2015년에는 GLS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에는 지난 2016년에 출시했다. 작년에는 3세대 GLS를 선보였다. 기존 벤츠 같은 형태에서 SUV다운 비율로 다듬었다. 덕분에 벤츠 패밀리 룩을 더 잘 소화한다. 더 잘생기고, 야성적이고. 신형 GLS는 3열에도 신경 썼다. 대형 SUV라고 해도 3열 공간을 넉넉하게 챙기지 못한다. 즉 3열은 대형 SUV의 공간성과 활용성을 판단하는 지표. 신형 GLS는 3열에 신장 194cm까지 앉을 수 있다고 자랑한다. 그만큼 공간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 2열도 전 세대를 대비 87mm나 넓어졌다. 2열 시트까지 접으면 적재 공간은 최대 2,400L. 벤츠 특유의 고상한 인테리아에 공간까지 확보했으니 인락함이 배가되었다. 가는 길이나 도착해서 느낄 편안함이 남다르다.

세상에 이런 차박이 아니라

럭셔리 브랜드에서 SUV를 내놓았다. 전통 있는 스포츠 드리븐 세단을 만들던 승마로 빛은 SUV는 그 자체로 목적인 위압감을 발휘한다. 가격이 높고도 차박에 어울리지 않을까? 럭셔리 브랜드 SUV는 나름대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오히려 구름 위 촛대 같기에 더 특별한 차박 경험을 선사한다. 가격은 언제나 상대적이다니까. 결국 차박에 합당한 공간과 형태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럭셔리 브랜드에도 이런 차가 있다. 3억원대는 벤츠리 벤테이가 V8이다. 벤테이가 W12 내비 내비로 내비성을 강조한 모델. 엔진 기통 수와 배기량을 줄여 출력을 줄였지만, 그래도 넉넉하다. 럭셔리 브랜드의 배포가 어디 갈 리 있나. 벤테이가 실내에는 분명 자동차 실내인데, 일반적인 감흥 이상을 선사한다. 두툼한 가죽과 공예품 같은 각 부분은 오프로드 기구 줄버한 방을 보는 듯하다. 유럽 귀족의 고성 속 방처럼. 벤테이를 타고 차박을 떠면 유럽 귀족이 사냥터 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지도 모른다. 근교 강변만 가도 감흥이 사뭇 다르다. 벤츠리는 벤테이를 내놓을 때도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울트라 제모드 선보였다. 벤테이가 전용 냉방과 외수납공간, 그곳에 넣을 수기, 크리스탈 전 등을 포함한 나들이용 물러나 햄퍼 세트다. 햄퍼를 일부 분리해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귀족 나들이 분위기가 절로 난다. 이런 차박, 벤테이가 더 편하다. 4억원대는 롤스로이스 칼리던. 롤스로이스와 차박, 이 낯선 조합이 컬러로 머뭇거리던 일이 된다. 롤스로이스가 내놓은 SUV니까. 산으로 들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든 롤스로이스니까. 칼리던은 일반적인 SUV보다 덩치 큰 세단 같은 느낌이다. 롤스로이스의 기품을 유지하며 SUV의 다목적성을 취한 덕분이다. 칼리던에도 미만의 양탄자로 불리는 승차감을 그대로 구현했다. 인막 구성 역시 롤스로이스의 예술품 같은 수준. 차박에 합당한 공간은 라운지 시트가 조성한다. 롤스로이스 최초로 접을 수 있는 시트다. 2열 시트를 접으면 1,886L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칼리던에는 전통식 기구 칼리던 뷰잉 스위트도 도입했다. 버튼을 누르면 가죽 시트 한 쌍과 카터일 테이블이 트렁크 공간에서 솟아오른다. 차량 뒤쪽 풍경을 우아하게 앉아서 바라보기 위한 장치다. 가장 우아한 차박, 칼리던이 선사한다. 글: 김경호(서울시동작칼럼니스트)





match with purse

오래도록 함께한 아이템에 지루해졌다 싶을 때, 스퀘어넥 포인트를 주거나 0인한 아이템이 없다. 가장 스트랩에 묶어 색다른 연출했다가도 기운이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매듭을 풀어 목이나 어깨에 두르는 것도 슬기로운 방법. 경쾌한 컬러로 말들의 춤을 표현한 더블 페이스 스카프 80만원대 **에르메스**, 진주 장식이 시릴스러운 크릴 배지 호보 백 가격 미정 **샤넬**, 오스민투스외 재스민, 매그놀리아의 싱그러움 향7 들 담은 에투알 필립트 100ml, 38만원 **루이 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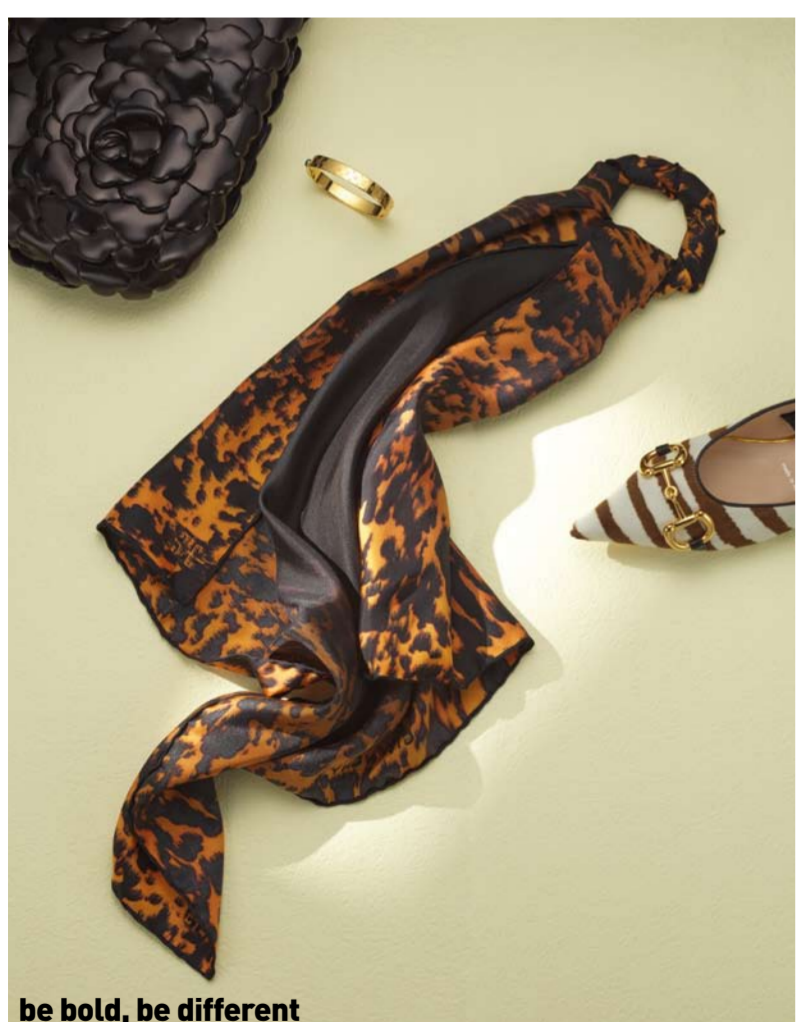


romantic in the air

환절기에는 카타민 장사처럼 실크 스카프를 반으로 접어 어깨에 걸쳐 두르거나 목을 감싸듯 머물러처럼 연출해도 좋다. 단, 패턴이 화려한 스카프를 선택했다면 모자나 선글라스를 솔리드 디자인으로 선택해 스타일링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국적 감성의 동식물 모티프가 아우라진 퓨어 실크 스카프 54만원 **살버토레 페라기모**, 스트로 소재 라 포제트 파.마 햇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스타드 장식을 더한 핑크 그라데이션 리운드 선글라스 52만원 **알렉산더 맥퀸**.

silky touch

봄바람이 살랑살랑, 바야흐로 스카프의 계절. 반듯한 스퀘어 스카프부터 프터 사이즈 트릴라까지 실크 스카프 한 장으로 즐기는 낭만적인 봄날의 스타일링.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be bold, be different

스카프는 목에만 둘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손목에 묶어 액세서리처럼 연출하거나 포니테일로 묶은 헤어에 둘러 스타일링에 활기를 더해주는 것도 좋다. 스카프 끝을 길게 늘어뜨려 묶어주면 낭만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관능적인 매력을 한껏 드러낸 레오파드 실크 스카프 80만원대 **자카르타**, 홀스잇 장식이 애니멀 패턴의 조합이 잇스러운 플랫 슈즈 31만7천원 **구찌**, 장미 아플리케 장식이 특징인 아틀리에 스톤 호보 백 3만7천원 **발렌티노 가바나니**, 모노그램 패턴을 새긴 브레이슬릿 89만원 **루이 비통**.



color play

보가만 해도 기분이 맑아질만한지는 사랑스러운 감성의 파스텔컬러가 대세다. 스카프와 룩의 톤온톤 예치는 파스텔컬러를 더욱 발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여기에 민트색 가방으로 포인트를 더하면 피부 톤까지 화사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리버실블 스타일링에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는 트릴라 가격 미정 **샤넬**, 브러시드 가죽으로 완성한 슬릭한 실루엣과 감각적인 민트 컬러가 아우라진 클레오 브러시드 가죽 슬더백 2만5천원 **프라다**, PK 셔츠 스타일링 케ابل 원피스 가격 미정 **블로 로렌**, 에디터 **이유이**

balance of beauty

이스라엘에서 탄생한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실크이 유·무선 듀얼 사용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한 3세대 고주파 마사지를 선보인다. 편리함은 물론 안전성과 기능, 그리고 그림감까지 뛰어난 실용적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sponsored by silk'n

팬데믹 2년째,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 덕분에 편한 시간에 집에서 손쉽게 스스로 관리하는 홈케어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기기의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나, 사용법이 번거롭거나 또는 향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주 찾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다가올 4월에 론칭할 실크이 페이스타이트 3.0은 모양도, 무게도, 그리고 기능성도 매우 만족스럽다. 고주파 피부 관리기 실크이 페이스타이트는 P&K피부양상연구소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 목 피부 처짐 277.44% 변화, 팔자 부위 볼륨 72.95% 변화를 보여 피부 탄력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전 세계에 출판되는 SO:급 (저널 오브 코스메틱 더미올로지(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에 페이스타이트의 주름 자가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된 적도 있어 신뢰가 간다. 최근 피부과 수술에서 인기 있는 3대 리프팅 중 하나인 인모드 리프팅에 실크이 계열사인 인베이션스의 제품이 사용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 병원용 장비 회사의 기술력과

가성용 피부 관리 의료 기기의 기술력이 만나 탄생한 탄력 케어 고주파 피부 관리기가 페이스타이트3.0이기 때문이다. 피부 속탄력을 채우고 리프팅 효과에 도움을 주는 바이오파고주파 에너지(RF)와 콜라겐을 형성해 피부 톤 개선에 도움을 주는 LED 레드라이트, 그리고 고주파 에너지와 LED 레드라이트를 피부 속 진피층까지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열 에너지(R),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 피부 속탄력을 회복시키는 실크이 페이스타이트의 3.0 버전은 지난 2.0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해 사용자 편의에 따라 유·무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덕분에 집에서는 물론 장소를 옮겨가면서도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 한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림감이 좋도록 동 모양 곡선을 살린 깔끔한 화이트 케이스를 고급스러운 로즈 골드 라인으로 장식한 감각적인 디자인도 눈에 띈다. 다가오는 4월 론칭 시기에 맞춰 특별 할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 장가는 55만원이다. 문의 080-246-1234 에디터 **장미유**

2023년 상반기 입주예정

빌딩속 하이웨이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경험하다

대한민국 첨단 비즈니스의 새로운 중심이 될 향동에 빌딩 속을 달리는 직진형 드라이브인을 갖춘 GL메트로시티가 옵니다.



* 본 홍보물의 CG, 이미지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

3월 오픈

GL 메트로시티 향동

사행 디앤씨덕은(주) 시공 한화건설 1588-4699

대한민국을 대표할 부동산 디벨로퍼 - GL

- 중로 그랑 서울 [2013 완공]
- 중로 Tower8 [2015 완공]
- 아이콘 역삼 빌딩 [2017 완공]
- 문정 SKV1 GL 메트로시티 [2017 완공]
-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 [2023년 입주예정]
- 원예디션 강남 [2026년 입주예정]
- GL 메트로시티 한강 [2021년 4월 분양예정]



시간을 초월한 우아한 디자인의 레코드 플레이어. 비연나 필러모닉 창립 1백75주년을 기념해 탄생했다. 바이올린, 클라리넷, 플루트를 비롯해 실제 악기 에 사용된 재료를 적용, 총 27개의 단독 제작 기공을 거쳐 완성된다. 2천만원 프로레드 오디오 시스템즈, 02-926-9084



이클로그 엔프의 정밀한 디지털 엔프의 정교한 분석과 콤팩트함을 결합한 드라이브의 핵심 기술 ADAP를 적용했다. 2개의 개체 자체 특허 기술로 7인치 낮은 음역대부터 초고역대까지 이르는 정교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팬텀 원. 4백59만원 드비엔에, 02-512-4091



하이엔드 오디오의 일차, 음악이 듣기에 추천하는 엔프의 모델이다. 800W의 고출력을 자랑하는 고성능 스피커를 탑재해 100바, 1000바의 고출력을 자랑하는 인텔리전트 세팅, 특대유형, 마당창리 등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 35,50X144, 78X43, 18cm, 가격 미정. 02-512-4091

all that Audio

예전만큼 공연장과 연주회에 마음껏 갈수 없어 아쉽지만, 훌륭한 사운드만큼은 그대로 즐길 수 있다. 최고의 성능과 음향을 자랑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18개의 스피커 드라이버, 각 드라이버를 보조하는 18개의 엔프를 탑재해 스피커 1대에 18개의 엔프를 탑재한 사운드에 버금가는 8200W의 파워를 구현하는 디지털 리워드 스피커 베오원 90. 73.5X125, 3X74, 7cm, 1억9백만원 뱀안음플루스, 02-518-1380



스피커 모듈러 가구 부러드 USM의 특이한 탄생, 신중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이 특징인 이스타 11 USM에다, 스피커의 주안 소재인 금속 피아노는 높은 음역을 통해 공간을 채워주어 전라문의 예술, 파우더 코팅을 더해 음향적으로 음을 익힘 한다. 20X130X90cm, 1150만원 프로레드 오디오, 02-512-4091



전면 울면서 사운드가 울려오는 통-리미터(블루어 스테디다이)를 스피커 모델 D, 46, AX205, 8X79, 7cm, 가격 미정. 사운드 엔지니어 빌드업, 02-512-4091



전 세계 25대 한정 생산한 아폴로그 에너버서리의 DNA를 담은 모델로 넓은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사실감과 웅장한 사운드를 선사하는 사이다. 2개의 스피커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다. 72X147X82cm, 2억8천만원 골드몬트, 02-516-9081



스피커 장착한 사운드 신사를 통해 스피커의 울림이 공간에 울려 퍼지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최상의 사운드를 구현하는 뱀안음플루스. 02-518-1380



벤들리 차림에서 영감을 얻어 특유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최고급 우드 마감 외관을 갖춘 뮤즈 포 벤들리 스피커 에디션 62, 8X12, 9X26, 4cm, 3백30만원 내림, 뮤즈 시리즈와 동일한 음질을 구현해 어디에서나 프리미엄 리스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 뮤즈 포 벤들리 레디안스 헤드론 1백50만원 코깅, 02-926-9084 에디터 이베미

editor's Pick

자꾸만 손이 가는 뉴 시즌 뉴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뷰티 시계 방향으로) **클레르보 보메 시크리프 사본** 이중 세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농밀한 케시터가 곁들여 모공 속 피지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부드럽고 일품하게 씻어준다. 프랑스 오베르뉴 지역에서 유기농법을 재배한 장미의 청아하고 맑은 향도 일품. 슈가 스펀지와 에센셜 오일 추출물이 세안 후에도 밀집하여 촉촉하고 유연하게 가루된다. 100g 14만5천원대.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이주이*

샤넬 루주 코코 #156 알파카스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발색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바 제형이 입술에 닿는 순간 평평한 오일로 바뀌어 풍부한 수분감을 부여하는데, 별도의 립밤을 덧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다. 함유된 은은한 이슬이 입술에 윤광과 볼륨감을 선사해 손쉽게 유려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3.5g 4만2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by 에디터 이주이*

에어리 메이크업 라인 업 제품인 볼륨 EDP 푸른 지중해의 풍경이 그려질 때만 난 나 시제품은 비싼지는 지중해의 풍경, 은은한 풀 향이 피어오르는 프랑스에서 영감을 얻었고, 첫인상은 심해한 시트러스 노트가 강하게 느껴지는데, 갈수록 은은한 플로럴 진향이 남는다. 자전 속에서 한바탕 필름이 보낸 연애편지처럼 아름다워가 따르려는 향. 50ml 15만2천원. 문의 02-6971-3212. *by 에디터 이혜미*

엘르브 듀얼 7인 오일 & 비온스 크림 피부 트러블과 건조한 지근, 불어난 모공, 탄력 저하 등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가진 지중해성 혹은 수부지 피부에 적합하도록 연구와 기술 끝에 탄생한 제품. 많이 비비는 것이 아니라 흡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제품 철학이 반영되어 있어 끈적이지 않고 촉촉, 허풍 증식 억제에 촉촉하다. 리프트 크림에 꼭 빠졌던 나온 듯한 기분이다. 엘르브 오일 0.27gX8, 크림 50ml 7만3천원. 문의 02-543-0509. *by 에디터 장미은*

나스 유오아 페이스 팔레트 하이라이터와 아이섀도, 아이 라이너까지 모두 아우르는 페이스 팔레트. 컬러를 어떻게 조합하든 시원스럽고 우아한 볼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진주 성분과 불활성화 된 피그먼트가 피부에 닿는 즉시 밀착된다. 미세한 입자 때문에 피부와 밀착된다는 페이스 라이언을 이용해 투명하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선사한다. 아이섀도 1.2gX8, 하이라이터 4gX3 9만9천원대.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이주이*

결망 아메이 로얄 아이 R 리페어 세럼 마스크 쓰는 생활을 시작한 후부터는 상처와 대항하거나 표정을 짓을 때 무엇보다도 눈이 중요해졌다. 유네스코 지정 생분해 전자적인 위상성에서 수화한 콜로이드 3개의 탄력 효과를 주는 이 제품은 스킵이 트 콜로이드 마스크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해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사용 일주일째 아침 저녁로 마스크를 하니 확실하게 효과가 줄고 생각이 든다. 20ml 14만3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장미은*

자생시 미스터 아이브로우 퍼우더 펜슬 N1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컬러 라 냐너 섀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크로마틱하고 피우더리한 타입으로 섀도한 느낌. 세 가지 섀도 중 N1이 가장 밝은 갈색인데, 튀지 않고 익숙하다. 1.8g 3만2천원대.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장미은*

데코르테 리프트 디펜스 브라운링 리우메이 크림 노니 열매와 레몬 추출물을 조합한 생분해 피부에 스킵이 잘 지워줘 도울 줄을 주고,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생분해 피부에 힘을 부여한다. 부담 없이 편안하게 흡수되는 부드러운 크림 텍스처가 무엇보다도 일품. 이용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은은한 그린 플로럴 퍼우더 향도 만족스럽다. 50g 12만2천원대.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이주이*

디올 프리스티지 리프트 인 화이트 라 솔루션 듀얼 메이크업 세럼 건조하지 않고 섀도하게 마무리하는 에센스 타입. 화이트 로즈 생분해 에스테르의 풀 리페팅 생분해 및 자연스러운 빛이 나는 피부로 정돈해주고 피부 저항까지 끌어 올린다. 민감한 피부도 자극 없이 편안하게 케어해주며, 스킵이 타입과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0ml 5만1천원대.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이주이*

바이레도 믹스드 에모션 오 드 퍼퓸 달콤한 카시스, 실론 홍차, 바이올렛 잎, 버치 우드와 피페루스 향이 섞여 편안하고 안정적임. 이 세상이 어디에 있든, 한때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던 그 순간처럼 가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한방에 담았다.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는 에-자르 가득 한 봄에 잘 어울리는 향이다. 100ml 가격 미정. 02-3479-1688. *by 에디터 장미은*

연꽃 에이 크림 케어 필 파운데이션 #1호 피부에 닿는 순간 부드럽게 스며드는 밤 타인의 쿠션 파운데이션. 텍스처가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에어리한 재질이 감각을 줬다. 자연스럽고 생생한 결점 커버에 특화된 재질인듯, 건조 피부보다는 지성 피부 이들에게 추천하며, 특히 번들거림이 심해지는 여름에 더욱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16gX2ea 6만2천원. 문의 1644-4490. *by 에디터 이혜미*

로라 메르시에 시크릿 큐리큘라지 브라운 & 코넬트 듀오 #0.5N 퍼우처 속 빠지지 않는 아이섀도 컨셉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 편리하다 하는 인클 스킵 타입을 선호한다. 베이스가 강자 로라 메르시에의 투안원 컬러 스킵 컨셉과 피부 결 정을 가리는 코넬트, 디크너를 케어할 수 있는 브라운링 필이 앙락으로 달린 데다 피부에 즉각적으로 밀착되는 크로마틱 텍스처로 지속적 워터 인클인 인클로움 케어 사용한다. 1gX2ea 4만5천원대.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이혜미*

라프라리 울트라 레어 오 드 퍼퓸 레주메이션 프로토크를 대표하는 최상급 플라워 레어 컬렉션의 정점을 찍는 제품. 한 달 집중 트리트먼트 프로그램 앰플로, 1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궁극의 레주메이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일주일 남게 직접 사용해본 소감은 놀란다. 최근 전한 인메이징 제품 중 가장 빠르게 가치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피부 속까지 탄력하고 투명하게 차오른 듯한 기분이다. 8mlX3ea 가격 미정. 문의 02-511-6626. *by 에디터 이혜미*



SHOWROOM

LIFESTYLE



시몬스 리빙 페어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에서 시몬스 리빙 페어를 진행한 다. 특정 매트리스 구매 시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각자적인 디자인의 침대 프레임과 러셋트 구매 시 시세상한 가격 혜택도 만나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일일 금액 이상 구매 시 다양한 시몬스 품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문의 1899-8182

BEAUTY



스킨 퍼펙터 3.0 글로벌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스킵 코리아가 유무선 듀얼 사용이 가능한 고주파 마스크인 퍼펙터 3.0을 출시한다. 바이오콜라겐과 에-자르(RF), LED 레드라이트, 열에-자르, 세가-자르가 동시에 적용해 피부 속 탄력을 회복시킨다. 문의 080-246-1234

샤넬 재주도 팝업 뷰티크 오픈 우아한 재주 신라호텔에 문을 여는 팝업 뷰티크는 화이트와 베이지 컬러를 사용했으며, 영화와 예뻐에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롤아웃하고 생기 넘치게 꾸민 것이 특징. 2021 S/S 컬렉션은 물론 코코 비시 샤넬 캡슐 컬렉션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2-3708-2010

브루넬로 쿠차넬리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이탈리아 남부 바실리카타주의 도시 마테라(Matera)의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창조된 새로운 2021 S/S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주방과 스타, 기념, 흉데고, 그리고 레저 & 트래블 라인 등을 선보인다. 즐겁고 가치 있는, 휴식 같은 편안한 스타일의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문의 02-3448-2931

살바토레 페라기모 2021 S/S 캠페인 오스카스 후보에 오른 루카 구아다그니노(Luca Guadagnino) 감독의 패션 필름에서 영감을 받은 살바토레 페라기모의 2021 S/S 캠페인. 컬렉션의 질감과 대담함, 액세서리의 구성과 밀라노 건축의 미학적 상호작용, 테크니컬러 팔레트의 영향, 등장인물의 미스터리 등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감 넘치게 한다. 시크한 환경에 놓인 자신을 상상하도록 유혹하고, 페라기모를 그들 자신의 흥미로운 인생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변모시킨다. 문의 02-3430-7854

알렉산더 맥퀸 커브 백 버킷 백을 강렬하고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고, 메종의 아이콘인 허네스 실루엣을 반영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자색으로 어는 원단의 이중 달기는 온전한 타원 형태를 이룬다. 탠, 티 로즈, 라임, 코랄, 옐로, 블랙, 그리고 블랙 데데 일을 기미한 데넵과 스포트 아이보리 등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한다. 가장자리는 모두 수직선으로 마감했다. 문의 02-6905-3472

폼스튜디오 텍스처 레이어 셋업 텍스처가 살아 있는 재킷에 안감을 길게 내려 마저 블라우스를 레이어드한 듯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재킷과 스카트를 선보인다. 재킷 앞면의 큼직한 버튼은 클래식한 레트로 무드를, 루스한 메이드 형태의 스카트는 세련된 분위기를 선사한다. 문의 02-3449-5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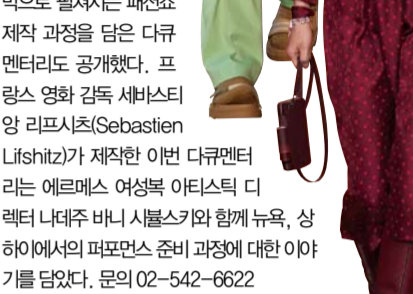
토즈 여성 펌프스 새롭게 선보이는 토즈 여성 펌프스는 새들 데타일과 핸드메이드 스티칭이 특징이며, 윤곽을 따라 레이즈드 더블 스티칭(Raised Double Stitching)을 적용해 미적 요소를 더했다. 소프트한 가죽을 사용해 트리트 홀리에 은은한 주름이 지게 한 것과 반타이한 체인 클랩프가 이번 시즌 모카신 펌프스의 핵심적 디자인 요소다. 문의 02-3438-6008

보스 맨 2021 S/S 남성 컬렉션 이번 컬렉션에서는 시즈널 컬러로 생동감 넘치는 색조와 아름다운 파스텔 색상을 함께 선보이고, 중성적이고 채도 깊은 풍부한 톤으로 꾸몄다. 특히 컬렉션 중심 무대를 차지했던 그린 컬러가 돋보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이트 에메랄드와 딥 포레스트 그린 컬러로 스타일링한 록부터 뉴트럴 샌드 - 베이지 - 블랙 컬러와 어우러져 모던한 느낌을 더하는 록까지 다양한 룩을 선보였다. 문의 02-515-4088



살바토레 페라기모

에르메스 2021 F/W 컬렉션 에르메스는 지난 3월 6일 웹사이트(hermes.com)에서 2021 F/W 여성복 소식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뉴욕, 파리, 상하이에서 3막으로 펼쳐지는 패션쇼 제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공개했다. 프랑스 감독 감독 세바스티앵 리프시츠(Sebastien Lifshitz)가 제작한 이번 다큐멘터리인 에르메스 여성복 아티스틱 디렉터 나데주 바니 스텐스카와 함께 뉴욕, 상하이에서의 퍼포먼스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문의 02-542-6622



에르메스



폼스튜디오

볼가리 비로코 컬렉션 1백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름값이 특별한 작품의 유즈가 되자준 로마 그 자체에서 얻은 영감에 장인 정신을 더해 탄생한 비로코 컬렉션. 이 새롭고 특별한 컬렉션은 생동감 넘치는 컬러, 경이로운 빛의 효과, 아름다운 형태, 상세한 디테일로 삶과 아름다움에 대한 희망과 긍정, 즐거움의 메시지를 전한다. 문의 02-2056-0170

에거 르클르르 리베르스 북 스위스 파인 워치메이킹 브랜드 에거 르클르르가 문화를 전으로 다루는 최초의 아트 북 출판사 아슬렌(Assouline)과 협업해 새로운 책, (리베르스)를 출간했다. 이번 책에서는 역사학자이자 저널리스트 겸 시계 전문가 니콜라스 폴크스(Nicholas Foulkes) 가 리베르스의 역사를 소개한다. 문의 02-6905-3998

에르메스 닌렛 워치 닌렛 워치가 올해 탄생 30주년을 맞았다. 직사각형 속 직사각형 케이스가 특징으로, 1938년 로베르 뒤마가 디자인한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모티브, 상 당크르 브레이슬릿에서 영감을 받아 1991년에 첫선을 보였다. 올해는 골드와 스틸, 2가지의 케이스로 출시했는데, 여기에 우아하게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델도 소개한다. 문의 02-542-6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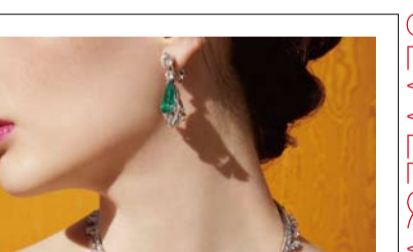
비비엔 콘스탄틴 트래디셔널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 12 시 방형 투르비용과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해, 오트 유희로제리의 역사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뛰어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제작 기술을 구현한 시계. 무엇보다 투르비용 캐리지와 인하우스 칼리버 3200에 사용된 모든 부품에 적용한 장식과 수공 미감 기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문의 02-3479-1879

빈클리프 아벨 락키 스프링 생경이 새롭게 태어나는 봄에 대한 이질없는 찬사를 담은 컬렉션. 무당벌레, 매화꽃과 은방울꽃 잎, 벨 모양 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순수하고 우아하며 유쾌한 궁정 이미지를 전달한다. 인테리어 건축가와 텍스타일 디자이너 등과 함께 작업해 풍성한 컬렉션을 완성했다. 문의 1668-1906

론진 커뮤 워치 달콤한 사랑의 날 화이트데이가 있는 3월,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디자인의 커뮤 아이템을 찾는 연을 위해 미래의 시대를 함께 개척한다는 의미를 담은 론진 워치를 추천한다. 그중 론진 스피릿 컬렉션은 실버, 블루, 블랙, 3가지 버전의 다이얼과 스틸 브레이슬릿 혹은 라이트 브라운, 다크 브라운, 블루 가죽 스트랩 등 다양한 조합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 완벽한 커뮤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다. 문의 3479-1940



에거 르클르르



볼가리



에르메스



빈클리프 아벨

FASHION

JEWEL & WATCH



Zip Antique Ludo necklace
transformable into a bracelet,
rubies and diamonds.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현대 무역센터점
신세계 강남점 - 본점 - 센텀시티 - 대구점
갤러리아 EAST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

www.vancleefarpels.com - 1668-1906